일본국가의 과거와 현재

일본어일본학과

21402327

박현욱

무로마치 시대는 무로마치 막부가 일본을 통치하던 시기로,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막부를 세운 1336년부터 1573년까지를 가리킨다. 아시카가 가문이 중앙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시카가 시대**(足利時代)라고도 한다.

일본 중세의 안정기로, 그 시기에 제아미에 의한 노의 완성이 이루어지며 또한 니조 요시모토에 의한 렌가의 발전도 주목할 만하다.

무로마치 막부가 교토에 자리잡고 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로 활발하였으며 무가 문화와 귀족문화, 대륙문화와 일본의 전통 문화를 하나로 융합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오닌의 난 계기로 중앙 문화와 지방문화의 융합도 진전이 되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오닌의 난 계기 이후로 여러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노, 교겐, 차도, 꽃꽃이가 탄생하게 되었다.

노- 가마쿠라 후기에 발원하여 무로마치 초기에 완성된 [일본](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의 가무극(歌舞劇)이다. 일본의 전통 예능인 노가쿠(能樂)의 하나로, 원래 이름은 사루가쿠 노(猿樂能)이다. 노멘(能面) 또는 오모테(面)라고 부르는 [가면](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B%A9%B4)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용 극장인 노가쿠도(能樂堂)에서 상연된다. 출연자는 모두 남성이며 [가부키](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B%B6%80%ED%82%A4)와 달리 여성역을 맡은 배우는 여성적 발성을 하지 않는다.

특정의 형태로 갖춘 무대에 '시테'·'와키'·'쓰레' 등의 연기자가 등장하여 요쿄쿠(謠曲)를 부르면서 하야시가타(연주자)의 반주에 맞추어 흉내나 무용적인 동작을 하는 일종의 악극이다.

교겐- 일본의 전통 희극(喜劇)이다. 일본의 전통 예능인 노가쿠(能樂)의 하나로, 원래 이름은 사루가쿠 교겐이다.

노의 대성자 제아미(世阿彌)의 시대부터 노와 같은 무대에서 병연(倂演)되어 발달된 것으로 독특한 풍자와 박력있는 연기, 세련된 형식이 특징이다

다도- 일본의 차 의식 을 말한다. 다도를 차 의식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대개는 일본의 차 의식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금각사와 은각사가 만들어 졌는데

금각사- 일본 교토의 사찰이다. 선종 불교 의 일파인 임제종 쇼코쿠지(相国寺; 상국사)의 탑두사원(塔頭寺院) 가운데 하나로, 사리전인 '금각(金閣)'이 유명하다.  
  
본래 무로마치 막부 의 제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 (足利義満)가 별장으로 건립한 건물이었으나 그의 사후 절이 되었다

은각사-금각사를 모방하여 규모는 작지면 형태는 거의 유사하며 요시마사가 요시미츠를 흉내내어 만든 건물이다.

센고쿠시대는 일본에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사회적, 정치적 변동이 계속된 내란의 시기이다. **일본 전국 시대**(日本 戰國 時代)이라고 한다. 1493년의 메이오 정변, 더 이르게는 1467년의 오닌의 난에서 시작한다고 보며, 1573년에 무로마치 막부 제15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 가 오다 노부다가 에 의해 교토에서 추방되어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질 때까지의 시대를 가리킨다

이시대에는 농업 문화가 강화되었는데 막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농업 진흥책을 강구했다. 그 결과 신전지가 늘어났으며, 여러 농기구가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량은 이전 시대보다 증가했다. 또한 농업 기술도 발전하게 되었는데, 각 막부는 우마(牛馬) 경작법을 각 지역에 전국적으로 보급했으며, 농학도 발달하며 미야자키 야스사다의 농업전서(農業全書)가 쓰여지는 등, 각종 학문적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리고 노예무역이 이루어 졌는데 노예무역은 헤이안 시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나 발달된 시기는 센고쿠 시대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었고 만성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 막부가 난립되면서 노예 수요가 상당히 높아진 것과 관련이 높다. 당시 일본 전역에 포르투갈인과 네덜란드인 상인들이 포진해있었는데, 이들 중 노예무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인이 적지 않게 있었으며, 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값에 노예 거래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노예무역을 했다. 노예 거래는 주로 규슈 지역에서 활발했으며, 번주의 명령으로 암암리에 실행되었으나 전문적인 노예상도 또한 존재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된 '노예'는 노예 신분이라기보단 각 막부에서 납치 등 인신매매를 통해 끌려온 평민들이 대다수였다. 또한 전문 노예상이 직접 인신매매에 가담하여 거래에 쓰일 사람을 납치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채권-채무 관계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노예로 팔기도 했다.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에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장악한 시대를 말한다. 연도상으로 따지면 1568년에서 1603년 까지를 가리킨다. 이 시대의 명칭은 오다 노부나가의 거성인 아즈치 성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거성인 후시미 성(훗날 성이 있던 구릉 지역의 이름이 모모야마인 데서 모모야마 성이라고도 불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의 특징은 개방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신선미가 넘치며 거대한 권력과 부를 반영하여 호화롭고 장대하였으며 불교 문화의 색채가 약해져 현실적.현세적 성향이 강하였다. 이 시대에는 유럽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문화가 다채로워졌으며, 학문과 종교보다는 미술공예와 생활문화 영역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났었다.

아즈치 모모야마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성곽 건축이다. 이 시대의 겅곽은 이전까지의 산성과 달리 교통이 편리한 평지에 위치하였으며, 중층의 천수를 가진 혼마루와 도루이, 해자로 둘러싸여 있고 석단을 쌓아 만들었다. 이는 전국시대의 성처럼 전투적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영국 지배의 거점으로서의 성격까지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시기의 아즈치 성, 오사카 성, 후시미 성은 성주의 거관이자 정청으로 웅대하고 화려하게 축조되어 천하 통일의 위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유럽 문화랑도 접촉을 하였다. 시계, 안경, 화승총, 포도주, 오르골, 오르간, 비올라 등의 문물을 접하였으며, 서민들 사이에 흡연의 풍습도 퍼졌다. 그리고 의학, 천문학, 지리학 등의 학문과 항해술과 서양화의 기법 등이 전해지고, 서양식 활자 인쇄술이 들어와 ‘이솝이야기’, ‘헤이케 모노가타리’ 등의 서적도 간행되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약탈해온 동활자를 이용하여 서적을 간행하고, 붙잡아간 도공들의 손으로 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에도시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가 일본을 통치한 1603년부터 1868년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급격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고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다. 에도 막부는 사회 안정을 최고 국시로 삼고 쇄국 정책을 펴 외부 세력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와(和)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우키요에와 같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화들이 꽃피웠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에도 막부는 1603년 3월 24일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1868년 5월 3일에 메이지 유신으로 인하여 에도가 개혁파들의 손에 떨어질 때까지 존속했다.

이 시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임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마찬가지로 해외 무역을 장려하였으나 외지인들을 믿지는 못했다. 그는 에도를 일본의 주요 항구로 부상시키고 싶어 하였으나, 유럽인들이 규슈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깨닫고 중국이 일본의 공식적인 무역 제안을 거절하자 이를 포기하였다. 그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무역로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였고, 특정 항구들을 정하여 그곳에서만 외부인들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에도 시대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전문적인 상업 지구가 형성되어 보다 발전된 형태의 상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고등 교육을 받은 엘리트 계급, 고도로 발달된 봉건제 정부, 생산성 높은 농업 기술, 전국적으로 이어져 있는 금융과 시장 경제 체제, 전국에 깔려있는 질좋은 도로 등이 서로 합쳐지며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일본의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또한 상품의 운송량이 크게 늘었고, 외국에서 들여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무역로들도 활발히 사용되었으며 상업이 번성하자 은행업과 대부업도 성장하였다. 지방의 번들과 다이묘들은 이같은 상업 발전을 크게 장려했고, 자신의 번들의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우키요에는 17세기에서 20세기 초 일본 에도 시대에 성립한 당대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나 풍경, 풍물 등 그린 풍속화의 형태를 말한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우키요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색상으로 찍힌 목판화인 니시키에를 말하는 예가 많으나 육필화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우키요에는 일본의 역사에서 풍속화로 등장했다. 우키요에 화가 가운데에는 가노파(狩野派), 도사파(土佐派) 출신의 화가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당시 가노파로부터 파문을 당한 화가들이 많이 우키요에로 전향을 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우키요에는 무로마치 시대로부터 모모야마 시대까지의 풍속화에서 영향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가부키가 있는데 가부키는 일본의 전통 공연 예술이다. 모든 출연자는 남성이며, 노(能)와 달리 여성역을 맡은 배우는 여성적 발성을 한다. 전용 극장인 가부키자(歌舞伎座)에서 공연된다. 일본의 주요무형문화재이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에도 시대의 민중극인 가부키는 17세기 초엽에 생긴 것이므로 현재까지 약 370년의 역사를 갖는 셈이다. 그 모태는 중세 말기부터 서민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후류(風流)라고 하는 민속예능 내지 풍속 무용이었는데, 그 성립·발전의 과정은 결코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 그 시대의 서민의 마음과 감각을 반영시키면서, 한순간도 정지하는 일 없이 모든 것을 흡수, 소화하여 생성, 변모함으로써, 오늘날 볼 수 있는 복잡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